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찾다

④ 1930년대 선원의 증가와 활성화

중흥하는 선학원, 선 수행 대중화 초석 다져

선학원이 초창기의 재정적 침체를 겪고 재건된 것이 1931년의 일이다. 중흥주 김적음(金寂音) 스님을 비롯한 선학원의 대...

이와 같은 선학원의 질적 변화는 그동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지방선원의 활성화...

표는 1931년부터 1935년 사이에 간행된 <선원(禪苑)>지에 소개된 지방선원과 안거...

오늘날을 살펴보면, 조선의 승계(僧界)는 계율이나 강학(講學), 선학(禪學)이나 불사(佛事)의 공덕, 기이한 행위로 각각...

1930년대 지방선원의 증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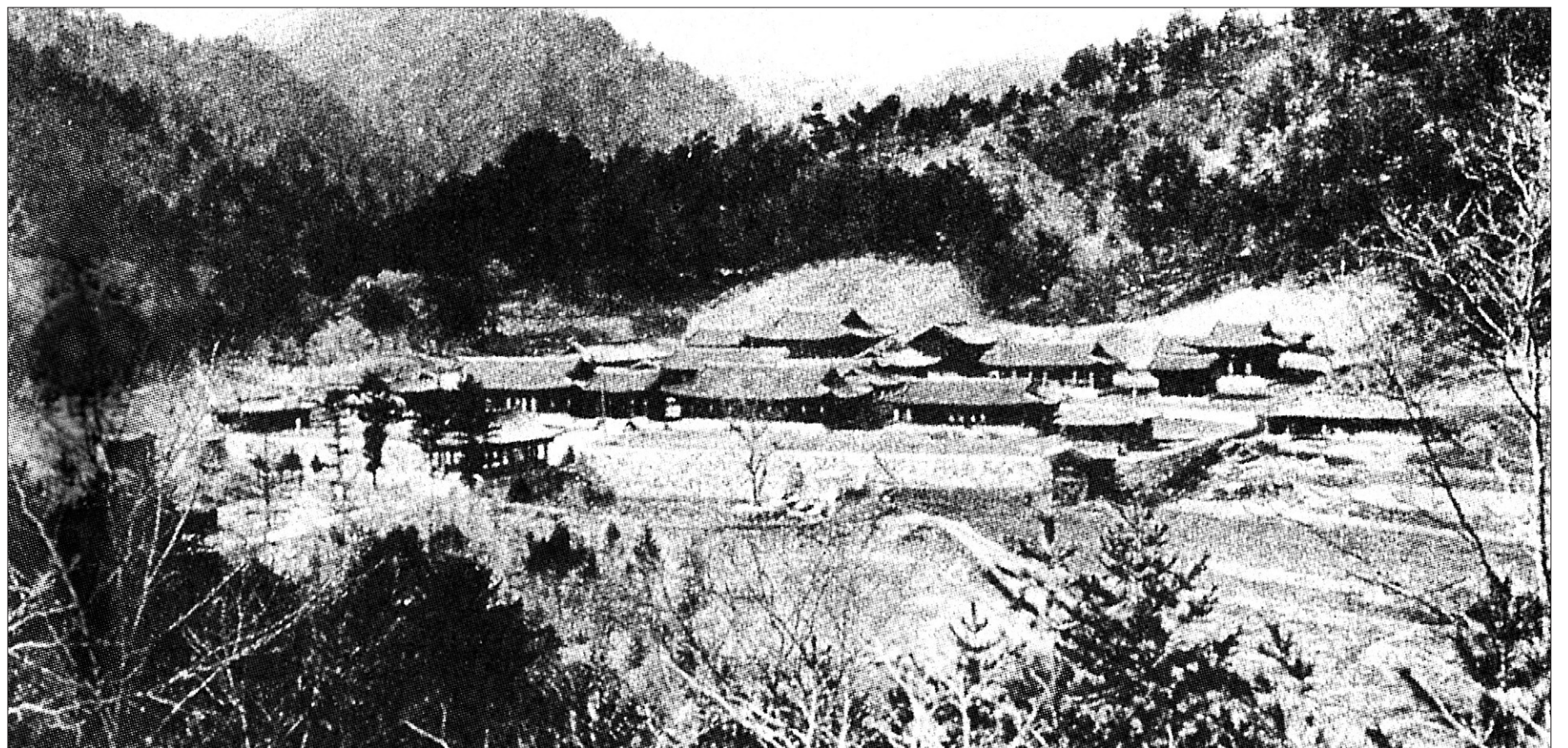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Year (1931, 1932년 2월, 1932년 8월, 1935년) and List of temples/monks (e.g., 유점사선원(70), 오대산선원(30), etc.)

() 안은 수행중인 대중 수

월동안 지속되었고, 한국불교의 근간인 선교학이 크게 흔들렸던 혼란의 시기였던 것이다.

1929년 1월 3일 각황사에서 개최된 조선 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朝鮮佛敎禪敎兩宗僧侶大會) 역시 불교계의 혼란이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 불교계의 분분사조조차 흔들렸던 시기에 선원의 안거대중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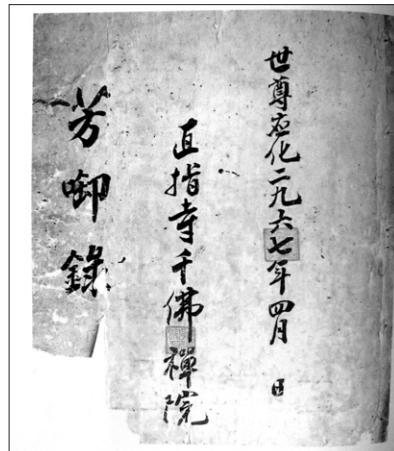
초기 선학원 선원이 설치된 금강산 유점사 전경. 1931년 이후 선학원 선원은 꾸준히 늘어 선종 창종의 원동력이 됐다.

선학원 재건 후 전국 선원 증가 안거 수행자 꾸준히 늘어 시민선원 도입도 큰 의미 선종 창조의 원동력으로 작용

는 선학원이 창설과 재건의 목적을 끈질기게 고집했던 결과다. 더욱이 선원의 증가는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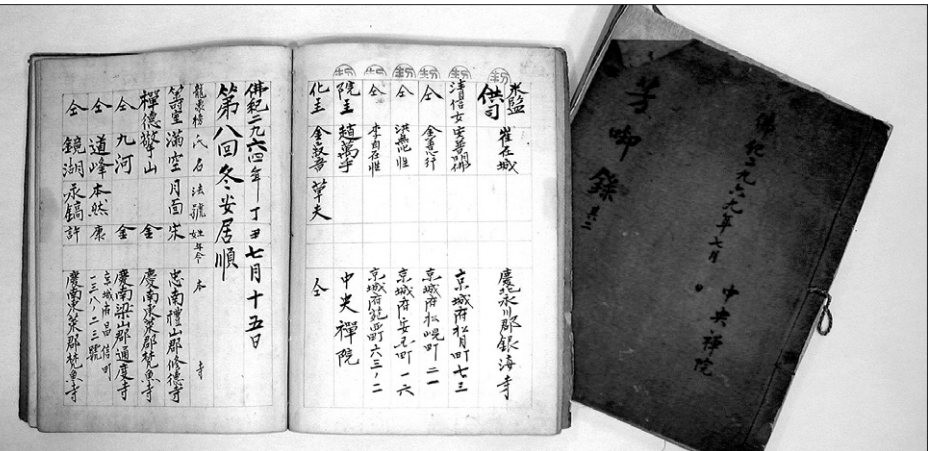
금낙선원(琴洛禪院)은 경북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경북의 명승지인 상화대(賞花臺) 아래에 있는데, 4년 전(1928) 화주 김성능(金性能) 화상과 시주 서병규(徐丙奎)씨가 상의하여 은해사포교당으로 허가를 얻어 작년 겨울부터 선회(禪會)를 개최하고 남북의 운수객(雲水客)을 모집하여 선학원 구를 시킨다 했으며, 화주 김성능 화상은 불상(佛像)·경전·기타 서적·종(鍾)등을 헌납하고, 시주 서병규씨는 5만 원 이상의 건물과 담(塲) 80여 두락, 전(田) 300여 두락을 헌납하여 연구완설(永久完備)한 선회(禪會)를 개최하였다고...

(《선원(禪苑)》 2호, 지방선원소식(地方禪院消息) 중에서)



선학원중앙선원방합록. 1934년부터 1965년까지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수행했던 안거 대중들의 기록이다. 재가자인 부인들의 명단도 수록하고 있어 이채롭다.

비록 재정문제로 문을 닫는 선원도 있었지만, 경북 영천의 금낙선원은 절의 불상을 비롯한 불구(佛具) 등을 처분하고, 건물과 전답을 내놓아 선원을 개원해 운수납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선원의 활성화는 당시 선학원 중앙선원(中央禪院) 안거방합록(安居芳嶽錄)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방합록은 수행자들이 안거할 때 안거객들의 소임 이름과 법호·법명·나이·주소 등의 방향을 적어 둔 서책이자, 절집 안에서 안거 때에 널리 쓰는 방부(房付)의 기록이다. 중앙선원 방합록은 두 권으로, 1권은 1934년 동안거부터 1942년 동안거까지 8년이며, 2권은 1942년 하안거부터 1967년 하안거까지 25년간의 기록이다. 1권에 수록된 안거 수행자는 302명이며, 재가여성 55명이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 이



가운데 대중수가 가장 많았던 기간은 1934년 동안거와 1935년 하안거·동안거 기간이다. 수행자 평균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1934년과 1935년은 선학원이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1935년은 3월 3일~8일 이틀 동안 중앙선원 법당에서 조선불교선종수좌대회(朝鮮佛敎禪宗首座大會)를 개최하였다. 한국근대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선종 창종이 진행되었던 이 수좌대회에서는 적음스님의 건의로 비구니와 부인은 여선실(女禪室)이 별도로 설치된 선원에 한하여 방부를 허락하지는 긴급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도 하였다. 선학원이 진력했던 선종의 대중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후부터 부인도 선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며, 이때의 전통은 오늘날 시민선실(市民禪室)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안거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만공스님이 조실 소임을 맡았고, 성월·도봉·적음스님 등이 선덕과 입승·화주소임을 맡아 중앙선원을 운영하였다. 결국 침체기를 벗어나 재건기의 선학원은 선종전직의 대중화를 통해 당시 한국불교계가 맞이하고 있었던 혼란과 분분사를 막았던 것에 대한 반성의 촉매제가 되었다. 아울러 지방선원과 안거 대중수의 증가는 민족불교 수호를 표방했던 선학원이 재단법인 인가와 함께 당시 사찰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불교계에 대하여 선종을 창종(創宗)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이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Advertisement for '108 Beads' (108염주)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eaded necklace, a list of 12 steps for making the bea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odern Buddhism News 108 Beads Making Movement.